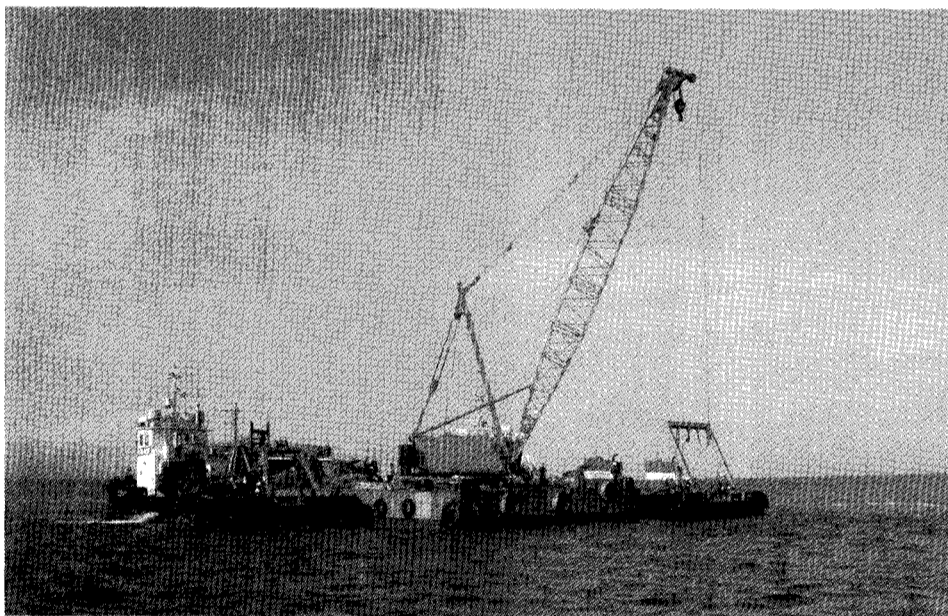


## 어항협회, 어장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

### 동·서·남해 주요어장, 침적폐기물 2천여톤 수거



한국어항협회가 올해 동·서·남해 주요 어장에서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을 활발히 실시, 어장 기반조성과 해양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올해 정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인 동해 울진 왕돌초 해역, 남해 부산 형제도 해역, 서해 연평도 어장 등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고성군 해양침체어망 인양사업에 참여 총 2,000여 톤을 수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동해 왕돌초 어장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어업인들의 주 조업 수역에 방치된 폐어망, 어구를 230.54톤을 인양했다.

이와함께 최근 극심한 어획부진을 보이고 있는 서해 연평도 꽃게어장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항협회 다기능 해양폐기물수거선 '크린오션호'의 총지휘로 628.34톤을 수거, 당초 계획보다 130여톤을 초과달성했다.

특히 연평어장은 꽃게의 회유, 월동 경로인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대대적인 정화 사업을 펼쳐 꽃게 산란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해 부산형제도 주변수역 어장에서는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그물, 로프터미, 와이어, 목재, 폐통발, 타이어, 드럼통 등 300여톤을 수거 당초 목표 256톤을 초과 달성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고성군 침체어망인양사업에 참여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인 사업에도 345.7톤을 수거 당초 계획보다 45.7톤을 초과해 9월 24일 사업을 종료 했다.

이로써 한국어항협회는 동·서·남해 주요 어장의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뒷받침 어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올해 말까지 남해 욕지-매물도 주변 수역에서도 정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공 지

##### 제3차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 ◆ 일시 : 10월 16일 - 17일(1박2일)
  - ◆ 장소 : 전북 부안군 일대 어촌 어항
  - ◆ 모집인원 : 80명(선착순)
  - ◆ 모집기간 : 10월 6일 ~ 10월 12일
  - ◆ 참가신청 : 한국어항협회 사이트 (www.fipa.or.kr)
- ☎(02)3673-2854